

광주일보

제17483호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 광주축산농협 안명수 조합장 취임

광주축산농협 제17대 안명수 조합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용순 농협전남지역본부장(사진 오른쪽 부터),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대표이사, 안 조합장, 정시채 전 농림부부장관, 이석형 합평군수와 조합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안 조합장은 그간 우루파이아운드, 세계무역기구, 농축 협동조합 등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지난해 종합 업적평가에서 전남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안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원 복지 실의사업 지속적 확대, 생축장과 첨단유통시설로 이어지는 원스톱 유통망 구축, 농가의 축산경영자금 대폭지원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호렌터카(주) 이삼섭 사장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회장에

금호렌터카(주) 이삼섭 사장이 23일 전국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2002년 설립된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은 현재 12개 회원조합과 금호렌터카, 아주오토렌탈(주), 대한통운의 3개 특별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업권보호,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육상운수사업자단체다.

이 회장은 지난 76년 종합무역상사인 금호실업에 입사해 금호건설을 거친 후 그룹종합기획 본부장, 금호주택할부금융 대표이사, 금호건설 주택·개발부문 부사장, 금호페이퍼텍 사장 등을 거쳐 지난 5월 금호렌터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중기청 ‘중기 CEO 혁신아카데미’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7월중에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의 교육기관으로는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선정됐다.

교육과정은 4일간(16시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활용과 사례, 혁신이론 성공사례, 중소기업 재무·인사·조직·생산관리·마케팅 및 해외시장 관리개척 등에 대한 강좌로 이뤄진다. 교육일정은 7월25~28일 오후 6~10시 한국은행 호남본부에서 실시되며 접수기간은 6월23~7월10일(선착순)이다. 문의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062-269-3401).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5월중 무역적자 4억6,000만불

광주·전남 전년동월비 2억9,100만불 늘어…전국 1억6,500만불보다 많아

## 고유가·원자재가 상승 여파… 수입 초과현상 심화

광주·전남지역의 수입 초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가 23일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5월 중 광주·전남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한 22억4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35.2% 증가한 26억9천 900만 달러에 달해 4억6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때

문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히 전남도의 무역적자가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55.4%)을 차지하는 원유(13억1천 400만 달러)의 수입이 크게 증가(전년 동월대비 64.2% 증가)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 타이어(7천700만달러, -0.5%), 화물차(2천800만달러, -45.6%), 세탁기(2천100만달러, -12.6%), 냉동(900만달러, -27.3%) 등이 부진했다. 전남은 열연강판(1억1천

900만달러, -6.7%), 냉연강판(9천100만달러, -34.3%), 아연도강판(5천900만달러, -22.4%) 등 철강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그나마 광주·전남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주력 수출품목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광주의 경우 반도체(1억7천800만달러, 30.0%), 승용차(1억7천만달러, 43.8%)가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합성수지(3억3천100만달러, 21.8%), 경유(1억4천600만달러, 1.039.7%), 기타 석유화학제품(1억4천

600만달러, 20.8%) 등과 선박(1억5천 200만달러, 73.8%)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고영만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변화, 특히 승용차·생활가전·선박·철강 등을 생산하는 관내 대형 수출업체들에 대한 직접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보해 ‘젊은일새’ 사랑의 손길 분주

### 독거노인찾아 봉사활동

보해 ‘젊은일새 사랑나누미’봉사단이 지난 24일 광주 ‘사랑의식당’에서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파’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어 ‘행복 재활원’을 찾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말벗 되어주기 ▲식사 먹여주기 ▲휠체어 밀어

주기 ▲재활운동 시켜주기 ▲시설 청소 ▲김장하기 등을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봉사단은 또 행복 재활원에 사랑의 쌀 400kg과 라면 20상자, 매실바람 300캔을 증정하기도 했다. 봉사단(htt://yipselove.co.kr)은 ‘배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 설립된 단체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농협 동광주기업금융지점

### 여신 5,000억원 달성

농협전남지역본부 산하 동광주기업 금융지점(지점장 이동일)이 개설 2년만에 여신 5천억원, 수신 1천억원을 달성했다.

모두 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동광주기업금융지점은 일반자금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B2B 구매자금대출, 토지공사협약대출, 수출입업체 외환영업 등을 통해 2004년 1천억원에서 5배의 여신확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동일 지점장은 “앞으로도 특성화된 영업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여신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LNG 특소세 면제 건의

### ‘초박형 페이퍼전지’ 특허 취득

건전지 전문업체인 로켓트전기는 23일 초박형 망간전지에 대한 특허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일명 ‘페이퍼전지’로 불리는 초박형 망간전지는 무게 0.15g, 직경 20mm, 두께 0.5mm, 전기용량 2.0mAh의 초소형 전지로, 액티브형 전자태그, IC카드, 전자페이퍼, 초박형 휴대기기, 웨어러블 컴퓨터(몸에 장착하는 컴퓨터)등 미래 전자부품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로켓트전기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전국 내의 미세 구조를 제어하고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전지의 문제점을 고려 방전시 용량 및 출력 감소현상을 개선한 것이 골자다. 로켓트는 이미 페이퍼전지를 개발 완료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특허 취득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유아용품 등 ‘토탈 인테리어 백화점’

### ‘까사미아’ 광주 상무점 오픈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까사미아(대표 이현구)는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맞은편에 400평 규모의 광주 직영매장을 개설했다.

광주매장은 4개층 규모로 유·아동용 키즈브랜드와 20·30대 혼수층을 대상으로 한 모던·로맨틱 스타일, 중년 층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스타일의 가구 및 침장,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한다.

까사미아는 광주매장 오픈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영점 18개, 대리점 60개, 백화점 5곳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